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김대건 신부 ③

전번 호부터 신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시복재판록’[2011~2012년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대조역주본]을 바탕으로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대건 부제, 유학길을 떠난 지 9년 만에 조국에 돌아오다 (1845년 1월)

1836년 12월, 사제가 되기 위해 유학길을 떠났던 김대건은 만 8년, 햇수로는 9년 만인 1845년 1월에 그리운 조국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증언을 한 사람은 김대건의 입국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김 프란치스코였고, 최양업 신부의 동생이자 현석문의 대자였던 최 베드로도 관련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시복재판 81회차 증인 김 프란치스코는 1842년 말 연행사의 일행으로 변문을 지나갈 때 김대건 신학생과 만났고, 북경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도중인 1843년 3월[양력]에 변문에서 김대건과 만나 그해 8월[양력 9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대로 8월에 변문에서 김대건을 만난 김 프란치스코는 선교사제의 입국을 돕기로 했으며 1844년 12월에 현석문, 이재의 등과 함께 변문으로 갔습니다. 이때 김대건 부제와 함께 페레올 주교도 왔지만,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주교는 들어오지 못하고 김대건 부제만 김 프란치스코 일행을 따라 의주를 통과하여 무사히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100회차 증인 최 베드로에 의하면, 이재의, 현석문, 한 베드로 등이 김대건 부제를 모시고 서울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이성지에 복원된 김가항성당 (우상단-철거되기 전 상해 김가항성당) 『가톨릭평화신문』 1371호(2016년 7월 3일자)

김대건이 사제 서품을 받고 페레올 주교를 모시고 조선에 들어오다 (1845년 10월 12일)

조선에 돌아온 김대건 부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3대 조선대목구장인 페레올 주교를 조선

에 입국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닷길을 통한 입국로를 개척하라는 주교의 지시를 받은 김대건 부제는 수개월간 준비를 한 후 조선 신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가 우여곡절 끝에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페레올 주교는 새로운 조선 파견 선교사제인 다블뤼 신부와 함께 상해(上海)로 왔고, 1845년 8월 17일 김가항성당에서 김대건에게 사제 서품을 합니다. 이후 8월 31일 김대건 신부 일행은 타고 왔던 배[라파엘호]를 타고 상해를 출발했고, 이번에도 풍랑을 만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0월 12일 강경에 도착했습니다. 1839년(기해) 이래 선교사제가 없었던 조선천주교회는 프랑스인 대목구장과 선교사제, 본방인 사제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 신부의 서한에 자세히 나오지만, 시복재판의 증언에서도 확인됩니다.

72회차 증인 김성서 요아킴과 102회차 증인 이 마리아는 김대건 신부가 조선 신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주교를 모시고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 프란치스코와 최 베드로의 증언에 나옵니다.

김 프란치스코의 증언에 따르면, 김대건 부제가 입국한 후 3~4개월간 서울 돌우물골(현재 서울 중구 산림동 일대)에서 지내다가 배를 장만하여 조선 신자들과 함께 상해로 갔으며, 거기서 사제품을 받은 후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모시고 바다를 건너 ‘강경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최 베드로의 증언에서는, 김대건 부제가 선교사제를 모실 준비를 한 다음 현석문, 이재의, 최형 등 신자 11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 상해로 갔으며 거기서 사제품을 받고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모시고 바다를 건너 ‘강경이 황산 동네(현재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최 베드로의 증언은 김 프란치스코의 증언에 비해 상해 여정에 참여한 신자들의 숫자와 이름, 조선에 돌아올 때 최종 도착지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상해 여정에 참여했던 현석문이 최 베드로의 대부였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신학생 김대건이 떠나기 전날 저녁에 일어난 일

지난 지면에서는 소년 김대건이 조선도 요동도 아닌 마카오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하게 된 배경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모방 신부가 여러 서한에서 전하는, 출발 전날의 작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1836년 12월에 소년 김대건은 10명 가량의 밀사단에 합류하여 조선과 중국의 국경이었던 변문(邊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모방 신부는 이때 파견한 밀사가 4명이라고 썼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유방제(여항덕) 신부와 사제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신학생 3명을 출국시키고, 샤스탕 신부를 입국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날, 누군가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밀사단은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출발 준비를 마친 밀사단은 모방 신부에게 떠난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전날 저녁에 함께 모여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신자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역도들을 잡으려고 조정에서 관리들을 파견했다, 그들이 행인들을 수색하고 소지품을 모두 뒤지고 있고, 심지어 타고 다니는 말의 안장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밀사단은 슬렁였고, 이번 일을 다음 해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방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방 신부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하고 난처하였습니다. 국경에서 감시가 강화되었다면, 출국하려는 유방제 신부와 신학생들이든 입국하려는 샤스탕 신부든 발각될 경우에 전반적인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방제 신부는 모방 신부의 우려에 대해 “걱정되지 않으니 떠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모방 신부도 얼마간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모두가 무사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출발을 주저하던 이들을 몇 시간 동안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모두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청하는 지향으로 날마다 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예정대로 출발하기로 했지만, 단호하게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안고 한 달여의 여정을 시작한 밀사단은 그러나 모든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유방제 신부와 신학생들은 무사히 출국하였으며, 샤스탕 신부는 1837년 1월 1일 입국하여 15일에 서울에서 기다리던 모방 신부와 재회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은 출발 후 약 7개월 뒤인 1837년 6월 7일에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근심이 가득한 어른들을 지켜보았을 소년 김대건이 무슨 마음으로 출발 전날 밤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밤부터 마카오에 도착했던 날까지 매일, 모방 신부가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미사성체에 의지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혜정 마리나(연구원)

간절히 예비하여 예수 성체를 영(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연구소에서 간행한 『병인치명사적』(대조역주, 전 6책)에는 병인박해 순교자에 대한 증언 자료 이외에 여러 다른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16권(대조역주본 5책 197~235쪽)에는 베르뇌 주교의 사목교서 「환난을 위로하는 말이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교의 계명(誠命)과 성(교)회의 갖가지 (성교)규구(規矩, 천주교의 규칙과 규정)를 삼가 지킬 것이요, 가장 요긴한 신공(神功, 기도)은 타당한 고해(告解)(이)니 지극히 적게 하여도 매년 1차는 할 것이요, 또 간절히 예비하여 매년 1차 예수 성체를 영(領, 받음)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다만 대죄(大罪, 큰 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교)회에서 정한 바 기절(棄絶, 파문)하는 영신(靈神, 영혼)의 벌을 관면(寬免)하기 어려우니, 너희 중에 여러 해 냉담(冷淡)하여 이 성사(聖事)를 받지아님을 들으매,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16권 61~62쪽)

박해시대 우리 신앙 선조들은 1년에 한두 번 사제를 겨우 만날 수 있었고, 그때야 비로소 성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병인박해 이후로는 오랜 기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인)군난 후에는 신부 다 치명하신 즉 성사를 못 받았더니”(『기해병오시복재판록』 회차2 장 로사 증언 중)

우리는 지금 끝이 잘 안보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방역을 위해 여전히 주일 미사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사 봉헌과 성체를 영함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는 시대를 꽤 오랜 기간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6월 예수성심성월을 맞아 『병인치명사적』 속 베르뇌 주교님의 교서 중 성체를 영하기에 앞서 ‘간절히 예비’하라는 가르침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박해시대 신앙선조들은 사제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며, 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병인치명사적』에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위주구령(爲主救靈,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구함)’, ‘감수인내(甘受忍耐, 즐거운 마음으로 참아냄)’, ‘열심 수계’ 등의 표현이 수없이 등장하는 것에서 그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인치명사적』의 기록을 통해 항상 ‘은총의 상태’를 유지하며 간절한 준비 끝에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마침내 순교하신 신앙선조의 삶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백신옥 베드로(연구원)

소식과 공지

▣ 『병인치명사적』 (대조역주본 전 6책) 주문 안내



-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신청하시는 분께만 10%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무료배송).
주문을 모아서 매 주 1회 일괄 배송해 드립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하고 전문연구자의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9호 원고 모집

- 투고 마감일 : 2021년 7월 31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후원(CMS) 전환 안내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께서 CMS 출금 방식으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내역(성함과 금액)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 은행에 자동이체 송금을 먼저 해지하시고,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후원금 이체 은행

농협 : 221091-55-000541 (예금주: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신협 : 131-013-870130 (예금주: 수원교회사연구소)